

## 조계종 교구본사 7직 '빈자리' 많아 포교·행정·사회활동 '미지근'

### 소임자 공석·비상근이 절반... 소신·전문성 살려 구성해야

상당수 조계종 교구본사가 총무, 교무, 재무, 기획, 사회, 포교, 호법 등 7직의 부재와 이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본사(本寺)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포교, 사회 국장이 공석이거나 비상근인 본사도 각각 11개,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사회전반의 수행 열기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들이 이러한 흐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것은 본지가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들 대상으로 7직의 보직 여부와 상근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드러났다. 7직은 조계종이 지방중정법을 통해 교구본사가 갖춰야 할 직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구행정의 핵심역할이다.

조사에 따르면 24개 교구본사 중 13곳이나 되는 8개 본사가 아직도 7직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개 교구본사는 2-3개 직책이 공석이고, 총무 재무 교무 3직만 두고 있는 본사도 있었다. 심지어

어는 총무 스님만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

7직 모두 상근하고 있는 곳은 월정사,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등 4곳에 불과했으며, 불국사의 경우 교육 문화 국장을 추가로 두고 매일 조회를 실시하는 등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호남지역 A본사의 한 종무원은 "담당 국장 스님이 없거나 상근하지 않는 분야의 업무는 다른 부서의 종무원이 함께 맡게 돼 일이 늦어지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총무 스님만 상근하는 영남지역의 B본사의 경우 사찰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포교는 물론 지역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지역 C본사는 열악한 종무체제와 행정력 부재로 지역 내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포교와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소임자가 없거나 비상근인 교구본사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일을 한다는 점에서 보면, 활발한 포교활동과 사회



"음식물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11월 4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앞에서 '빙그릇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제종길·배일도 의원, 탤런트 김수미 씨, 뒷줄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경재 위원장, 단병호 의원. 사진=박재원 기자

### "적게 먹고 아껴 쓰겠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 '빙그릇 운동' 캠페인

이날 캠페인에는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경재 환경노동위 위원장, 제종길, 배일도, 이재오, 단병호 강유신 기자

의원들과 탤런트 김수미 씨 등이 동참했다. 이경재 의원은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5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며 "빙그릇 운동"을 실천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북한 기아 어린이와 불우이웃을 돕자"고 말했다.

정도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식당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기금을 모아 불우이웃과 기아 어린이들을 돕자는 환경 캠페인 '빙그릇 운동'을 벌였다.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v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태고종 총무원장상  
- 현대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붓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명단자 선정(예세이문화 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서 교육사업 편다

#### 실천승가회 내년 학교 설립 계획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 공동의장 효린·성관)가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불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펼친다. 실천승가회는 11월 2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5년부터 캄보디아 사범 및 지역 고아원과 초등학교, 기타 교육시설을 설립 운영 하는 'Beautiful World of Cambodia(이하 BWC)'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22일 소간 캄보디아 부총리를 만나 BWC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BWC 사업은 오랜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교육시키고, 양코르와트 사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불교국가 캄보디아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천승가회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총 200만명이 투자돼 100여 명의 고아를 수용하는 고아원, 한 학년 30명씩 총 여섯 학급이 운영되는 초등학교, IT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등이 3단계에 걸쳐 건립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 "천성산 판결 신중해야"

#### 법불교운동본부 법원에 의견서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고속철 천성산 구간과 관련한 부산 고법 판결을 앞두고, 불교계 신행·환경단체로 구성된 '도통종 소속 100만인 서명 법불교운동본부(이하 법불교운동본부)'는 재판부의 신중한 판결을 청원하는 의견서를 11월 3일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법불교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천성산 관동터널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국토를 농단하고 헬세를 낳는 국책사업을 막을 분수령적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불교운동본부는 이어 "법원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시공사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신 기자



##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 禪 너는 누구냐

###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들려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7-0695 Fax: 02)737-0696

여시아문